

장흥군, 빈집 정비로 활력 넘치는 농촌 '시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총 60동 세대당 150만원 지원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학교 및 청소년 밀집 구역 등

장흥군이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마을 거주민의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는 마을 경관개선은 물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미사용·미거주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자체재원 9,000만원을 확보하여 세대당 150만원씩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 대상 ▲학교 및 청소년 밀집 구역 ▲국도 및 지방도 인근 주택 등이다.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 및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장흥군은 4월부터 빈집정비를 추진하여 현재 60동 중 41동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흥군 전역의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아무도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조사 등으로 추진된다. 조사 결과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계속될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와 주민 및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빈집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사용 하세요"

강진군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강대찰벼 및 찰벼 생산을 위한 벼 이삭거름의 적기·적량 사용(施用)을 당부했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효과를 보기 위한 웃거름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어린 이삭 길이가 0.15~3cm 가량 생길 때 주는 것이 적당하다. 강진군 이삭거름 사용적기는 강대찰 벼 품종은 예상출수 8월 15일 기준으로 7월 23일부터 29일이며, 고품질 찰벼 이삭거름 역시 출수기를 기준으로 사용 일자를 정하면 된다.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의 출수기는 보랏찰벼 8월 12일, 동진찰벼 8월 13일, 백옥찰벼 8월 20일이다. 이삭거름의 적정 사용량은 밀거름으로 완료 성비료를 준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토양특성 및 물관리에 따라 맞춤형 이삭거름을 사용하면 된다. 관내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NK 북비(질소성분량 18%)를 기준으로 11~12kg를 사용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 닭코스 요리 식사권을 잡아라"

오는 24일까지 해남 닭코스요리 방문의 달 행사 이벤트 실시

해남군의 대표 먹거리 '해남 닭코스요리' 시식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해남군은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을 통해 7월을 해남 닭코스요리 방문의 달로 지정하고 '해남 닭코스요리 식사권을 잡아라' 이벤트를 추진한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24일까지이다. 추첨을 통해 1등 110명에게는 닭요리촌의 7만원 상당의 식사 쿠폰, 290명에게는 피크닉메트 또는 보냉백 등 총 400명에게 이벤트 선물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해남군 공식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게시물 공유(리그램) 네이버 폼에 참여인증 및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닭요리촌을 이

용하고 음식 사진과 영수증 인증샷을 본인 SNS계정에 업로드 하면 1등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필수 해시태그는 #해남여행 #해남닭요리촌 이다. 해남군 대표 먹거리촌인 닭요리촌은 지난 2020년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노후간판 교체와 주차장 조성 등 새 단장을 실시했다. 1970년대 닭백숙을 팔던 작은 음식점에서 유래한 해남 닭요리촌은 해남읍 연동리-삼산면 매정리에 걸쳐 닭요리 취급전문 11개 업소가 산재해 있다. 가슴살을 저며낸 육회, 고추장 양념으로 볶아낸 닭 불고기, 오븐에 구운 바삭한 닭구



이, 한약재를 넣고 푹 삶은 보양백숙, 깔끔한 닭까지 5가지 요리를 차례로 맛볼 수

있는 닭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청년센터, 청년 창업 스쿨 수료식...26명 참여

진도군에서 '청년 창업 스쿨' 수료식이 최근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다. 창업에 관심 있는 진도군 청년 26명이 참여해 창업 아이템 선정·개발, 마케팅, 성공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청년 창업 스쿨 수료생에게는 ▲창업을 위한 컨설팅 ▲맞춤형 솔루션 ▲창업 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년 인구유입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네팔 하디바리시와 업무 협약



하반기 659명 배정 예정 어촌 인력난 해소할 것으로 기대

완도군은 지난 7월 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네팔 하디바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7월 13일에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2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차로 69명, 2차로 60명이 입국한 바 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포럼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여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으로 농어촌에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면서 "근로 기준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